

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
| 배포일시 | 2021년 8월 27일 |
| 보도일시 | 즉시           |

## “반도체·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, 적극 뒷받침 할 것” 삼성경제연구소-민주연구원 간담회 결과

- 민주연구원, 삼성경제연구소와 제3차 정책 간담회 개최
  - “한국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우리 기업들의 도전과 기술혁신이 필수적”
  - “ICT, 반도체, 바이오 등 미래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논의”
  - “삼성엔 전 세계 반도체·바이오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일류기업”
  - “제안된 구체적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기업의 혁신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”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노웅래)이 미래-전략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기업 경제연구소 정책 간담회의 세 번째 순서로 삼성경제연구소(소장 차문중)를 방문했다. 오늘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석하여 대한민국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.
- 삼성경제연구소는 「미래 주력산업 육성」이라는 기조 발표를 통해 ICT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하였으며,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.
-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“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전략안보 산업으로 발전했음”을 강조하며, “최근 삼성이 반도체 초격차 완성을 위해 발표한 240조원 투자계획에 맞추어 민주당도 정책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.”는 간담회 소감을 밝혔다.
- 또한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은 “D.N.A.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는 것이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핵심과제”임을 강조하고, “인프라, 부품·생산, 제품서비스 혁신과 함께 AI·SW 전문 인력 양성 등 간담회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과 대선공약에 포함하고,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○ 민주연구원은 4대 대기업 경제연구소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, 9월 1일(수)에는 현대차그룹이 운영하는 HMG경영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.

※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, 정책 간담회 현장의 기자 출입은 제한될 예정이오니,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향후 <정책 간담회> 일정

- 9.01.(수) 15:30 HMG경영연구원(현대차그룹)

[붙임] ‘삼성경제연구소-민주연구원 정책 간담회’ 행사 사진

[붙임] '삼성경제연구소-민주연구원 정책 간담회' 행사 사진



- ▶ 송영길 당대표(오른쪽)과 노웅래 원장(왼쪽)이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로부터 '미래 주력산업 육성'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.



- ▶ 정책 간담회 간에는 '미래 주력산업 육성'을 주제로 ICT산업과 바이오 산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정책과제 등을 논의했다.



▶ 송영길 당대표와 노웅래 원장이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고 있다.



▶ 삼성경제연구소 관계자로부터 '미래 주력산업 육성'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.